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6년 7월 호)



이경식 수석부총장, 국제협력처 한국 방문 예정

CST 국제협력처는 올해도 한국을 방문하여 여러 신학교 및 대학교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한국 동문들과의 만남을 통해 CST의 소식과 비전을 나눌 예정입니다.



〈사진: 2025년 동문회 모임, 2025년 10월 24일, 계산중앙교회(최신성 담임목사)〉

올해 이경식 수석부총장의 한국 방문 일정은 9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입니다. 김남중 교수/부학장은 안식년 중이어서 올해는 이경식 수석부총장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지만, 작년과 같이 이경식 수석부총장의 한국 방문을 위해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이경식 수석부총장은 CST의 한국 동문들과 교류하고, 여러 학교를 방문하여 입학설명회를 갖고, 설교와 강연을 통해 CST의 교육 사역과 비전을 나눌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5개 학교를 방문하여 입학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0개 학교를 방문하여 총 150명의 학생들과 입학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진: 감신대 2025년 입학설명회〉



〈사진: 장신대 2025년 입학설명회〉

또한 이경식 수석부총장은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전문상담박사 과정의 영성통합심리치료 과목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이 과목은 신앙, 영성, 심리치료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요한 학문적·임상적 토대를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정으로, CST 한국 동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 한국 동문회는 최신성 목사가 회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10월 16일 금요일 오전 11시, 성남시에 위치한 불꽃교회에서 열립니다. 불꽃교회는 공성훈 목사가 담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동문회는 한국에 있는 CST 동문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사역을 격려하고, CST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경식 수석부총장은 한국 방문 중 CST 동문 목회자들의 사역지도 방문하여 설교하고 격려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CST 동문들이 각자의 사역 현장에서 감당하고 있는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고, 학교와 동문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더욱 깊게 이어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경식 수석부총장은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라오스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변종승 목사(D.Min. 학생)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라오스 방문은 CST 동문의 선교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현지 사역을 격려하며, CST의 국제적 사명과 연결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CST는 지난 14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학 교육과 교회, 사회, 세계를 섬기는 지도자 양성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CST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과 동문회, 학교 방문, 강의와 설교, 그리고 라오스 선교 현장 방문을 통해 CST의 사명과 비전이 한국과 아시아의 여러 사역 현장 속에서 더욱 깊이 나누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학교의 운영과 장학금 모금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경식 수석부총장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CST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동문회와 국제협력 사역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FY2026(2025.07-2026.06) Korean Funds 결산, 미래 신학 리더를 향한 후원의 결실

FY2026(2025년 7월-2026년 6월)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며 Korean Leadership Scholarship(KLS)와 Korean Endowment Fund(KEF)가 지난 한 해의 후원 현황과 장학금 지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한인 교회와 후원자들의 꾸준한 참여는 미래 신학 리더들을 세우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동안 KLS에는 14개 교회와 개인 후원자들의 참여로 총 \$73,985가 모금되어 누적 후원금은 \$1,181,516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KEF에는 \$120,000이 후원되어 누적 기금은 \$2,611,654를 기록했습니다. KEF는 기금 운영 원칙에 따라 누적 기금의 4%인 \$104,466를 FY2026 장학금 재원으로 책정하며 지속 가능한 장학금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원의 결실로 FY2026에는 총 18명의 학생에게 \$83,024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KEF를 통해 \$72,524, KLS를 통해 \$10,500이 지원되어 학생들의 학업과 사역 준비를 돕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FY2027(2026년 7월-2027년 6월) 장학기금 모금도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은 학생들이 학업과 소명을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인 교회와 후원자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참여를 통해 더 많은 신학 리더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You're Invited To

2026 클레어몬트 한국동문회

모든 동문을 초대합니다

동문회장: 최신성 목사(계산중앙교회)



2026년 10월 16(금)

오전 11시

불꽃교회(공성훈 목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11

연합감리교 California-Pacific 연회 이모저모

2026년 6월 17-20일, La Quinta Resort & Club

2026년 California-Pacific 연회(Cal-Pac Annual Conference)가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La Quinta Resort & Club에서 열렸다. 이번 연회는 예배와 회무, 축하와 추모, 파송의 시간을 통해 연합감리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확인하는 자리였다.



〈사진: Caucus 모임, 사진: 이필승 목사〉



〈사진: CST 동문이며 Cal-Pac 연회 최초 여성 목회자 Faith Conklin 목사, Mary Ann Swenson 은퇴 감독과 함께 CST 동문 모임 중 축도하다〉

여성 목회자 안수 70주년을 기념하다

올해 연회에서는 감리교 전통 안에서 여성 목회자 안수가 시작된 지 70주년을 기념하였다. 1956년 5월 4일, 당시 감리교회 총회는 여성에게 장로 안수와 연회 정회원 자격을 포함한 완전한 목회자 권리를 부여하기로 결의하였다. Cal-Pac 연회는 이 역사적 결정을 기억하며, 1974년 이 연회에서 장로목사로 안수받은 첫 여성 목회자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동문) Faith Conklin 목사를 소개하며 특별히 되새겼다.



〈사진: 왼쪽부터, Caleb Oh 목사, 안수받는 정춘욱 목사, 사진제공: 배동희 목사〉

한인 목회자 모임: 축하와 추모의 시간

연회 기간 중 6월 18일에는 Emperor Buffet에서 한인 목회자 모임(Korean Caucus) 저녁 식사가 열렸다. 코커스 회장 이석부 목사는 이번 연회에서 정회원으로 안수받은 정춘욱 목사와 Caleb Oh 목사를 축하하였다. Caleb Oh 목사는 아버지 오경환 목사와 함께 CST 동문이기도 하다. 또한 김도민 목사와 림학춘 목사의 은퇴를 축하하며, 그동안의 헌신과 사역에 감사를 표하였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소천한 다섯 분의 목회자를 기억하며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백승배 목사(2025년 9월 6일 소천), 전우영 목사(2025년 11월 22일 소천), 정용치 목사(2025년 12월 30일 소천), 김환기 목사(2026년 1월 27일 소천), 함무근 목사(2026년 5월 25일 소천).

새로운 사역지로 파송된 한인 목회자들

이번 연회에서는 여러 한인 목회자가 새로운 사역지로 파송을 받았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존칭 생략).

- 김영근: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
- Paul Y. Kim: 헤스페리아연합감리교회
- Sam B. Kim: Harmony Church
- 문연준: University UMC of Irvine, 부목사
- 이성기: 로스펠리즈연합감리교회
- 이종구: 월서연합감리교회
- 이석부: International Community UMC
- 김선빈: La Puente First UMC
- 오경환: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
- 정춘욱: 드림교회
- 정영치: 라구나힐즈한인연합감리교회

Cal-Pac 연회 안에서 한인 목회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사역의 장도 한인교회를 넘어 다문화 목회 현장으로 넓어지고 있다. 이번 파송 명단은 한인 목회자들이 다양한 지역과 공동체 안에서 연합감리교회의 선교와 목회를 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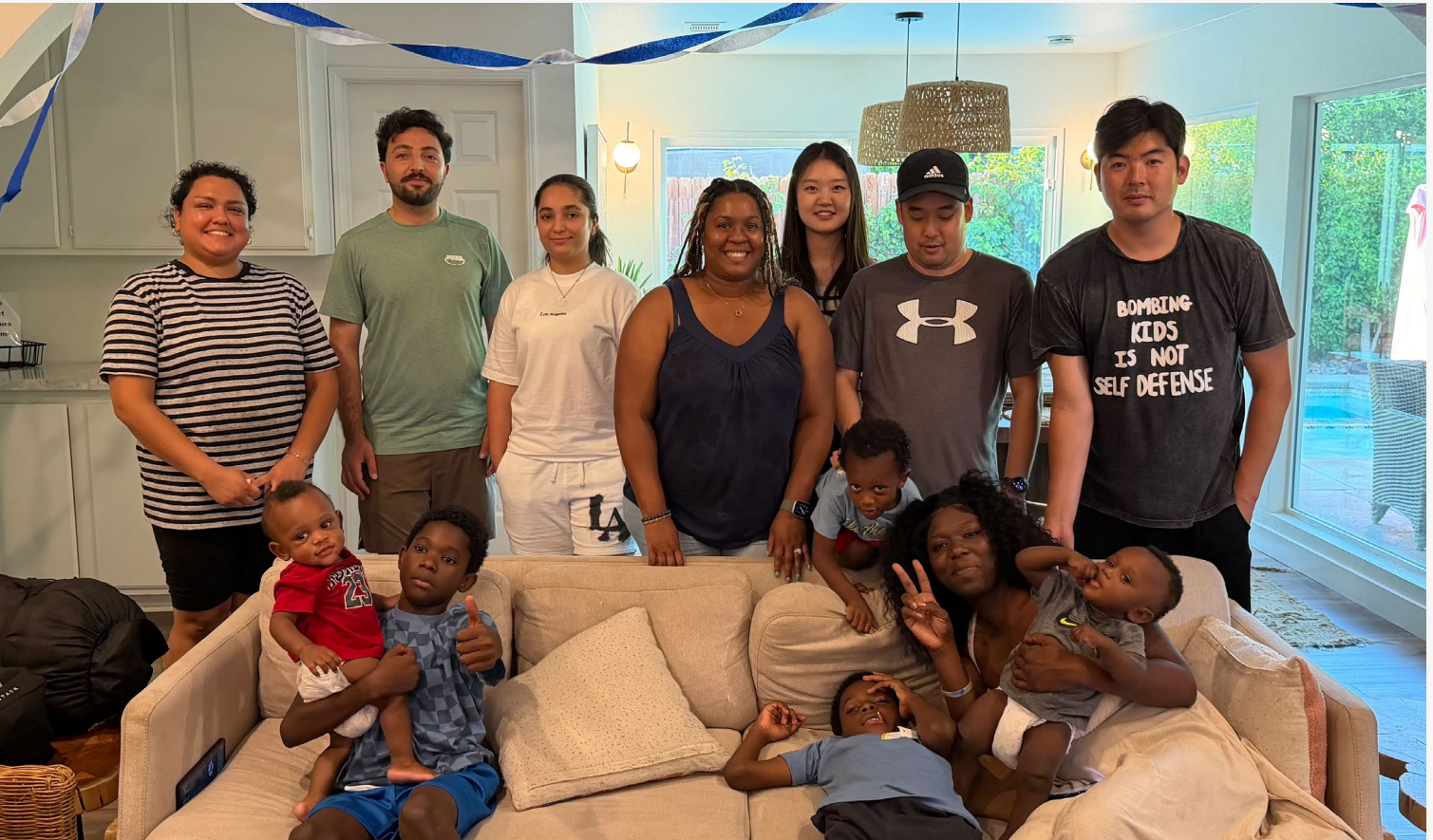
CST 동문 모임

연회 기간 중 6월 18일에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동문 모임도 열렸다. 약 80명이 참석한 이 모임은 Steve Horswill-Johnston 수석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Grant Hagiya 공동총장, 이경식 수석부총장, Lincoln Galloway 교수, Jeff Conklin-Miller 교수, Melissa MacKinnon 교수, 송민환 교수, Blair Stowe 교수가 함께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동문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CST와 교회 현장의 지속적인 협력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연회 중 CST 동문 모임〉

‘경이로움(Astonish)’ 속에서 바라본 연합감리교회의 미래와 비전



〈사진: 2026 California-Pacific 연합감리교회 연회에 함께 참석한 Tujunga UMC 교인들과 함께〉

안녕하세요, CST M.Div. 과정에 재학 중이며 Tujunga UMC와 Crescenta Valley UMC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혜인(M.Div.’27)입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California-Pacific 연합감리교회의 연회가 “Astonish”라는 주제 아래 개최되었습니다. 교단의 행정과 비전이 교차하는 중요한 자리에 North District Young Adult Lay Member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연회 기간 동안 모인 수많은 연합감리교회의 리더들과 멤버들을 대면하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연합하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각 지역 교회들이 마주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미래의 비전을 나누는 과정은 교회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공동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들은 생생한 사역의 고충과 희망의 목소리는 연합감리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이번 연회에서 가장 뜻깊었던 경험은 연합감리교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교단의 구조와 제도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차세대 교단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선거부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교회를 폐쇄하거나 재편하는 필수적인 행정 안건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투표 과정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회의장 안팎에서 청년들을 비롯한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을 교단의 중요한 주역으로 포용하고자 하는 변화의 움직임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회의장에서 각 안건을 둘러싸고 수많은 리더들이 자신의 확신과 신념을 담아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여 토론하는 모습 역시 매우 경이로웠습니다. 교단을 향한 진심 어린 염려와 기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대화들을 지켜보며, 연합감리교회가 지닌 의사결정 체제의 건강함과 미래를 향한 동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회 기간 중 마련된 ‘CST Coffee Time’은 학교와 연회 간의 결속력과 유대감을 체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현재 Cal-Pac 안에서 활발히 사역하고 계시는 CST의 재학생들과 졸업생, 교수님들, 그리고 학교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교단의 주요 리더십들을 한자리에서 모두 만나 뵈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사역을 위해 격려하고 따뜻한 비전을 나누는 과정에서 CST와 Cal-Pac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교와 연회의 연대와 든든한 지원 체계는 연회에 참석한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큰 자부심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무엇보다 열정을 품고 교단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글로벌 동역자들과 만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참관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연회를 마무리하며 현장의 수많은 리더와 나누었던 대화를 복기해 볼 때, 복잡한 행정 절차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과 세대 간의 연합을 잃지 않으려는 이들의 모습에서 UMC의 다가올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Astonish”라는 주제처럼 우리를 늘 경이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이번 연회에서 얻은 행정적 안목과 영적 배움을 바탕으로 교단이 맞이할 새로운 내일을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사진: 2026 California-Pacific 연합감리교회 연회에 함께 참석한 Tujunga UMC 교인들과 함께〉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DPC 과정 한국 입학설명회 개최; 상담과 영성을 통합하는 전문 상담 리더 양성을 향한 새로운 비전



〈사진: DPC 입학설명회 현장〉

미국 Claremont School of Theology(CST)의 Doctor of Professional Counseling(DPC) 과정 입학설명회가 2026년 5월 30일 오후 12:40분에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CST DPC 과정의 공동 디렉터(Co-Director)를 맡고 있는 김용환 박사의 진행과 DPC 학생인 김민정 조교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담과 목회 영역에서 더 깊은 학문적 성장과 전문성을 추구하는 목회자와 상담자들이 참석하였다.

DPC 과정은 “한국어 기반으로 수학하며 미국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전문 상담 박사과정”이라는 독특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상담자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DPC 과정은 상담 이론과 인간 이해, 그리고 기독교 영성을 통합적으로 탐구하는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특별히 이 과정은 목회적 돌봄의 전통과 현대 심리 상담의 지식을 연결하여 인간의 고통과 회복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상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상담 이론, 인간 발달, 심리적·영적 돌봄, 사례 이해와 개념화 등을 배우며 자신의 상담 철학과 전문성을 발전시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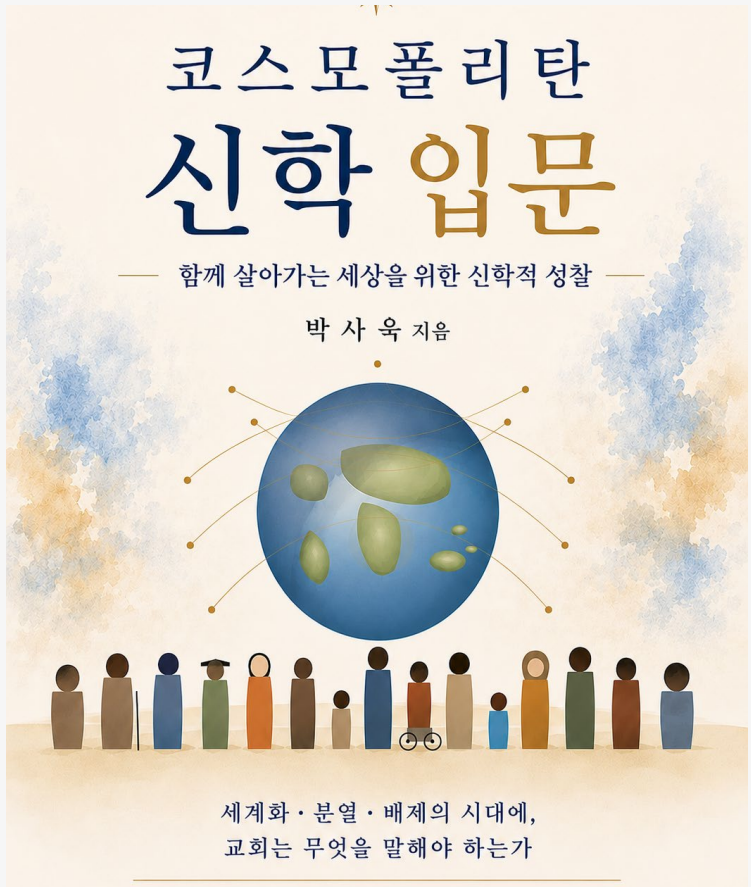
이번 설명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소개되었다.

- 왜 지금 DPC 과정이 필요한가?
- CST DPC 과정의 특징과 차별성
- 목회 상담과 심리 상담의 통합적 교육 방향
- 지원 자격 및 입학 절차
- 원서 작성과 추천서 준비 방법
- 학점 및 학비 안내
- 장학금 제도
- 온라인 기반 수업 운영 방식

특히 참석자들은 미국으로 이주하지 않고도 한국과 미국 어디에서나 온라인 기반으로 CST의 박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였다. DPC 과정은 지역적 한계를 넘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상담자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교육 환경을 지향한다. 또한 한국어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영어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미국 신학교육의 학문적 깊이와 CST가 가진 목회 신학적 전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사역과 상담 영역에서 더욱 깊이 있는 전문성과 통합적 관점을 갖춘 리더로 성장하게 된다.

이번 입학설명회 홍보는 CST 목회학박사(D.Min.)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길재호 목사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주요 상담 관련 협회 회원들에게 안내되었으며,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에게도 소개되었다. 총 15명의 참석자는 DPC 과정의 비전과 학업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CST DPC 과정은 앞으로 온라인 교육 환경을 기반으로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 한인 상담자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박사 교육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입학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목회자와 상담자들이 전문성과 영성을 함께 갖춘 상담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사진: 박사옥 목사와 신간 『코스모폴리탄 신학입문』〉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신앙과 목회의 길을 이어온 박사옥입니다. 돌아보면 제 삶은 경계를 넘나드는 여정이었습니다. 감리교 가정에서 태어나 장로교 신학을 공부했고, 일본에서는 침례교인이 되었으며, 클레어몬트에서는 다시 감리교 전통 속에서 배웠습니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 경계를 오가는 경험들이 훗날 제가 붙들게 된 신학적 물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013년 저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2017년 목회학 박사(D.Min.) 학위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일본 사회와 교회 안에 나타나는 배제와 네오내셔널리즘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무조건적 포용과 평등의 공동체를 향하여 — 코스모폴리탄적 관점에서 본 일본 교회의 네오내셔널리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클레어몬트가 제게 남겨 준 가장 큰 선물은 특정한 이론이나 방법론보다도 하나의 태도였습니다. 신학은 신학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학제적·탈학제적(transdisciplinary) 시각, 다양성을 존중하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려는 자세, 그리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넘기지 않는” 비판적 자기성찰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특히 논문 지도교수이셨던 강남순 교수님을 통해 이론과 실천을 분리하지 않고 삶 속에서 구현하는 신학의 길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일본침례교연맹 선교연구소에서 『코스모폴리탄 신학입문-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신학적 성찰』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출발점은 클레어몬트에서의 박사논문이었고, 이후 선교연구소 뉴스레터에 연재한 글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집필한 책입니다. 강남순 교수의 『Cosmopolitan Theology』(2013)를 이론적 토대로 삼아, 혹성적 환대·이웃사랑·연대라는 주제를 일본 교회와 사회의 현실 속에서 풀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의 작은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 교회가 오늘의 사회와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다 포용적이고 공공적인 신학을 향해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년이면 선교연구소 소장으로 섬긴 14년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붙들어 온 물음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앞으로는 지역교회 목회에 더욱 전념하는 한편, 코스모폴리탄 신학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는 연구와 집필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 첫 결실로 『코스모폴리탄 신학 묵상집』(가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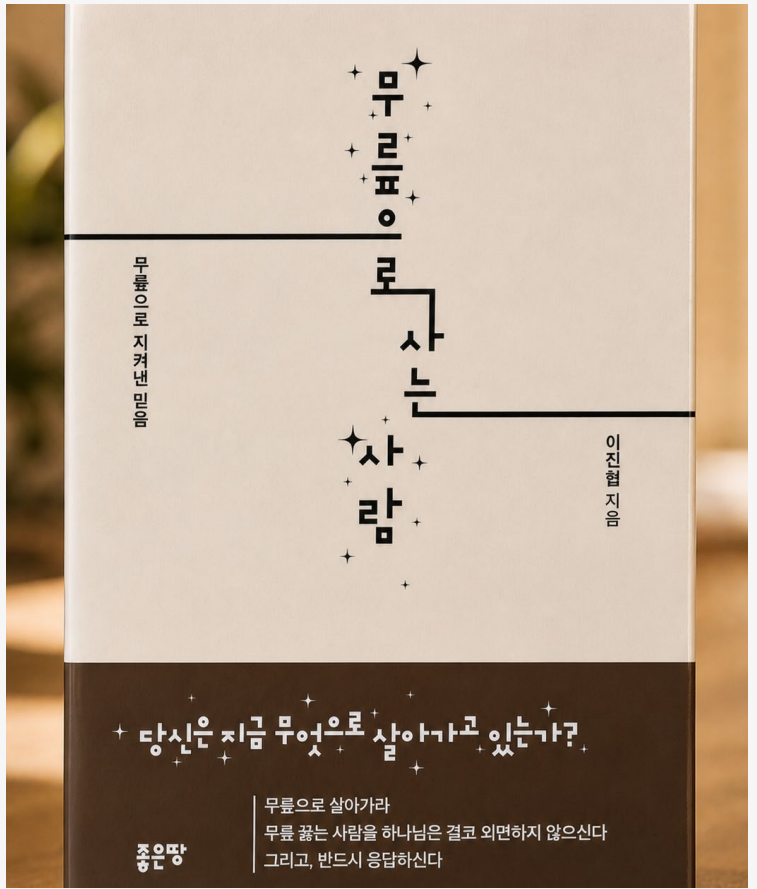
돌아보면, 이 모든 여정의 출발점에는 클레어몬트에서의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이 한 권의 책으로 자라나기까지는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 신학생, 그리고 함께 기도해 온 이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배움과 만남에서 길어 올린 물음을 동문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속: 일본침례교연맹 선교연구소 소장 · 니시카와구치 그리스도교회 주임목사 (겸직)

저서: 『코스모폴리탄 신학입문 — 함께 살아가는 세계를 향한 신학적 시선』 (일본침례교연맹 선교연구소, 2026년 11월 발간 예정)

영어판 『Cosmopolitan Theology: Theological Reflections for a World Living Together』는 미국 Amazon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보기)

<책 출간 소식 : 무릎으로 사는 사람>



<사진: 이진협 목사와 신간 『무릎으로 사는 사람』>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대전 한빛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진협 부목사라고 합니다. 현재 Claremont School of Theology에서 목회학 박사(D.Min.) 과정에 재학 중이며, 올여름 2학기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연구하는 목회적·신학적 내용들을 현재 교회 사역 현장에 실제로 접목하며, 말씀과 기도, 목양 사역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문과 현장이 함께 살아 움직이는 목회를 위해 계속 배우고 연구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출간하게 된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 단순히 기도를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 기도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어려웠던 시간이 지나며 쓰게 된 저의 고백 같은 책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느낀 것은,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싶어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거창한 믿음보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작은 시작”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책에서는 기도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순간과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사람》이 지치고 흔들리는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Blessed is the nation whose God is the LORD, the people he chose for his inheritance. -Psalms 33:12-



울타리선교회

Presents

27th Annual The Well Mission Fundraising Music Concert

with 자연나라
and Los Angeles Sinfonietta Orchestra

“Exultation”



Rev. Dr. Esther J. Na
President of The Well Mission



James Yongjae Kim
Music Director & Conductor

THE MUSIC CENTER'S
WALT DISNEY CONCERT HALL

AUGUST 23, 2026 SUNDAY, 7:00 PM

111 South Grand Avenue, Los Angeles, California 90012

로스앤젤레스한인회 · 미주중앙일보 · 미주한국일보 · 미주복음방송 · 미주기독교방송
CBS · TVKBS · MBC · YTN · CTS America · 크리스천 헤럴드 CHTV · 스포츠서울
코리아타운 데일리 · 크리스찬비전

Jayone 자연나라

Ticket Information : 213-819-0225

